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효과적인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Work Sheet」 활용 방안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주 희

효과적인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Work Sheet」 활용 방안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주 희

# 인 준 서

이 주 회 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수많은 시각 정보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지각하며 반응하고 정보를 새롭게 활용, 창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미술교육에 대해 요구되는 기대효과는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미술 감상교육은 이러한 시각적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궁극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심미적인 정서와 안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은 과거 미술 작품에만 국한된 감상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보다 광범위한 시각문화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미술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되며 직접적인 미적 체험과 관련된 감상교육 역시 중요한 의의와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넘쳐나는 시각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제작하고 재해석하는 시각적 인식능력을 길러주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과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 능력의 육성을 위한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상교육을 위한 교수 매체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개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목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II 장에서는 감상의 개념과 감상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밝히고, 감상지도의 유형과 감상지도 방법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감상 보조 매체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필요성을 구성주의의 교육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워크시트(Work Sheet)가 가지는 교수

매체로서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셀프 가이드(Self-Guide)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술관에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와 구성주의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로서의 학교의 워크시트(Work Sheet)를 분류, 제시함으로써 워크시트(Work Sheet)의 활용적 측면을 구체화 하였다.

V장에서는 워크시트(Work Sheet) 유형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제작상의 주안점 및 완성된 표본을 제시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는 시각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가는 오늘날 사회적, 교육적 흐름에 응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학습 도우미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 개발의 필요성과 제작유형 및 활용사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미술관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 및 교육 연구자들에 의한 보다 구체화된 후속 연구가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1
<b>II. 이론적 배경</b>	4
1. 감상의 개념	4
2. 감상교육의 교육적 의의	4
3. 감상지도의 유형	7
4. 감상 지도 방법의 종류	9
<b>III. 미술 감상 수업에서 보조 자료의 역할과 필요성</b>	11
1. 감상 보조 자료 개발의 필요성	11
2. 감상 보조 자료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장점	13
<b>IV.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활용</b>	15
1. 미술관 워크시트(Work Sheet)	15
2. 학교 워크시트(Work Sheet)	15
<b>V.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b>	17
1.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 유형	17
1) 형식에 의한 분류	17
2) 내용에 따른 분류	17
2.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	18
1) 수업 절차 모형	18

2)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모형-----	20
3) 시각 디자인의 적용-----	23
3. 워크시트(Work Sheet)의 내용 구성-----	37
4. 워크시트(Work Sheet)에서의 발문-----	38
1) 오감에 기초한 사고의 자극-----	39
2) 발문 사례-----	41
3) 반응의 형성을 위한 질문-----	43
5. 완성된 워크시트(Work Sheet) 표본-----	46
<b>VI. 결론 및 제언-----</b>	<b>56</b>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교육 및 학습의 개념이 변환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기구성능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넘쳐나는 시각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제작하고 재해석하는 시각적 인식능력을 길러주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sup>1)</sup> 교육과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sup>2)</sup> 능력의 육성과 직결된다.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백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수준이 인터넷 이용자율 3위를 기록한 데 힘입어 세계 종합 3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TV나 컴퓨터를 활용한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학생 대부분이 TV, 인터넷을 활용할 정도로 매스미디어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에서 게임이나 e-mail 교환, 자료탐색, 방송 등의 미디어는 이미 생활환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이 긍정적인 면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미디어 중독현상에 따른 많은 폐해와 차단막이 없는 유해정보가 비판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교육 방안으로 ICT교육을 중시하며 학교 현장에 컴퓨터와 각종 미디어를 보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미디어를 운용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미흡하고 단지 표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정보의 성장 뒤에 오는 어두운 부분에는 미처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1) 시각에 의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각 영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2) 이미지나 시각적 기호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시각정보에 의한 의사소통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지식 중심으로 획일화, 규격화되어 가는 학생들에게 심미적인 정서와 안목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시급하다. 미디어를 배척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자기 주도적, 개방적 그리고 협력하는 인간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의한 매체의 개발이 요청된다.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교육과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능력은 미술 감상 교육을 통해 육성될 수 있다. 미술은 타 영역의 학습에 비해 시각기호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특징이 강하다. 이러한 시각 기호에 의한 학습을 통해 보는 눈을 기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의식적인 인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정서에 반응하는 미적 체험활동을 돕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출발점으로서 교수-학습 상황에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워크시트(Work Sheet)에 대한 연구는 미술교육에 의한 시각문화 교육을 강조하며 개정단계에 있는 제 8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제 8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학습자의 생활 속 시각문화 환경이 주는 의미를 탐색, 탐구, 이해, 판단하는 체험을 강조하며 이러한 감각적 체험으로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 과정, 비판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가치 판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미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질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3)</sup>

3)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요약 pp.1~4

이러한 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교육으로서의 미술 감상교육은 시각문화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매체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착안하여 효과적인 미술 감상 지도를 위해 교사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워크시트(Work Sheet)의 구체적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감상의 개념

미술 감상이란, 미를 향유하는 미적 체험 활동으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자연 또는 다른 미적 대상에의 심미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에서 오는 정신적인 부분까지의 수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술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일,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해석,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감수하는 행위’<sup>4)</sup>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감상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기쁨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활동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미술작품의 가치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관조와는 달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나아가 오늘날의 감상은 다양한 시각정보의 비판적 수용으로 확대되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2. 감상교육의 교육적 의의

미술교육이란 학습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조형 언어로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미적 지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이다.

미술 감상교육은 이해 중심 미술교육사조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술 감상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독립된 학

---

4) 두산 백과사전

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감상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는 현대 미술과 각종 매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비판적 수용을 위한 시지각 능력을 기르는 미술 감상 교육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상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미적정서를 형성하는 체험활동이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시각현상을 접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무의미한 시각정보 속에서 학습자는 감상교육을 통해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또한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미술 감상 교육은 보다 적극적인 작품 이해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미술작품의 내용, 형식, 재료와 용구, 표현 기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 작품을 이루고 있는 미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비판적 시각정보 수용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방치 되어있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시각정보 수용 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감상교육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각정보 분별 능력을 길러 학생 스스로 시각정보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감상교육을 통해 분석력, 판단력,

비판력, 해석력 등을 신장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미술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다문화 미술교육’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미술교육 이론에서 살펴보면 다른 민족의 미술문화를 경험하여, 다양한 계층과 그들 문화의 사고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로써 자국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술 감상 교육을 통해 여러 나라 미술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수성을 재인식하며, 이를 창조,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표현 동기를 자극한다.

미술 감상은 이미 교수-학습의 도입단계에서 발상과정으로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감상 활동이 표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며 감상은 표현활동의 동기를 높여주고 보다 나은 제작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섯째, 창의성을 신장시켜준다.

미술 감상활동에서는 보고 느끼는 지각활동을 나름대로 구체화시키는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타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현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감상교육은 미적정서를 형성하는 체험활동이며,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비판적 시각정보 수용능력을 길러주며, 표현의 동기를

자극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신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3. 감상 지도의 유형

미술 감상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전개와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전통 미술 문화, 나아가 다문화적 미술 문화의 확대된 감상에 의해 그 방법 면에서 다양한 모색을 필요로 한다.

미술 감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sup>

첫째, 감상자의 태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는 ‘수용적 감상’과 ‘비평적 감상’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적 감상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감상으로 명화의 가치를 먼저 인식하여 감상하는 경우이다. 교사나 미술관의 도슨트, 비평가 등이 설명하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평적 감상은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탐구적 태도의 방법으로 감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스스로의 해석과 판단을 중요시한다. 비평적 감상은 수용적 감상보다 고등사고력을 필요로 하여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접근 방법에 따른 유형은 감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으로 나눈다. 직관적 감상은 감성에 의한 감상자 주관의 미적 가치 판단의 방법으로 이러한 직관적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의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미적 지식으로 고도의 시각적 인식

---

5)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2003, pp.134~146

능력을 쌓아야 한다.

분석적 감상은 작품 감상 시 조형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는 객관적 감상 방법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감상이 진행된다.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은 따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서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직관적 감성을 중시하고 그러한 감성을 자극시키고 계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직관적 감상 후에 분석적 감상이 이루어지면 보다 체계적인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상 대상의 수에 따른 유형은 감상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으로 나뉜다. 단독 감상은 한 개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 감상은 두 가지 이상의 작품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비교 감상을 시행할 때에는 작품의 선정에 있어 비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 시 감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감상 매체에 따른 유형은 감상 시 사용하는 매체에 의한 구분으로 미술관에 직접 가서 감상하는 ‘직접감상’과 인쇄된 자료, 슬라이드, 비디오, CD, TV 프로그램, Web-site 등을 통해 감상하는 ‘간접적 감상’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감상은 통합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작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보다 깊은 감동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학생에게 미술관을 친숙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여 평생학습 공간으로 접근하게 하고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간접적 감상은 미술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경의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

람하도록 한다.’<sup>6)</sup>고 명시하고 있어 직접 감상을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멀티 미디어를 이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sup>7)</sup>고 하여 간접 감상의 유형 또한 제시하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ICT를 이용한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다양한 간접 감상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한 간접 감상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감상에 비해 크기, 표면의 질감 등 작가가 의도한 흔적과 세부적 관찰이 미흡하여 생생한 감상이 어렵다.

#### 4. 감상 지도 방법의 종류

감상 수업의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학습상황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감상수업의 방법은 토론법, 관찰법, 모의 미술관법, 표현 활동법, 해설법, 문답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토론법은 미술작품을 감상한 후, 대집단, 소집단, 개인 간에 작품에 대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 또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표현의 특징과 조형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과정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일체 감상법, 분단 감상법, 대담법 등이 있다.

관찰법은 학습자에게 조형 요소 및 원리, 조형 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 형태, 방법상의 특징을 지닌 미술품에 다양하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다.

---

6) 교육 인적 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1997. p.189

7) 교육 인적 자원부, 상계서, p.189

모의 미술관법은 미술품에 접근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 학습자가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이나 도판을 수집, 분류, 전시하면서 감상 능력을 기르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표현활동법은 표현 학습의 유형에 속하는 적극적 감상법으로 회화, 판화, 서예 및 입체 작품의 도판을 보고 그대로 모사하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방문해서 실제 작품을 보고 모사하는 것, 또는 특징이 되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제작해 보기 등이 해당 되며, 감상한 내용을 역할극으로 재현하는 일까지 여기에 해당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작품 제작 과정을 알 수 있고, 또한 공감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해설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해설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답법은 교사가 묻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답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이 수업의 진행시에는 발문의 관점이 명확해야하고, 명료, 간결하며,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발문을 유도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 시간을 주도록 한다.

### Ⅲ. 미술 감상 수업에서 보조 자료의 역할과 필요성

#### 1. 감상 보조 자료 개발의 필요성

예술은 인간의 자각과 자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이 인간의 사유에 호소하고 있는 반면 예술은 사유와 함께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단지 지식의 주입만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감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크게 변해왔다. 특히 학습은 외부의 절대적인 진리가 학습자의 내부세계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던 객관주의에서 개인적인 경험, 생활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구성주의로의 변환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수없이 많은 시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수용할 것인가라는 정보의 취사선택 교육이 강조되고 이에 구성주의 교육이 현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 왔다.

현행 우리나라의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교수-학습의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획일적인 교육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주의자들의 교육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탐구, 해결하는 자율적 인간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재구성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고등 사고가 가능한 인간을 양성하고, 각자가 가진 개성이나 창의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대한 발휘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육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고, 학습 상황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개인의 지식이 확장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지식이 학습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구성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되거나 확장함으로써 습득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에 대비되는 이론인 객관주의를 미술교육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기표현과 개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교과와 특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된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지식 전수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론들은 교사 중심으로 지식의 이해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암기위주의 수업으로 전락하고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기 쉽다.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의 변화는 기존 학습환경에서 주어진 지식을 흡수하는 수동적 입장의 학습자에서,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지식의 형성자로서의 능동적 학습자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모든 학습 환경도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자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성주의를 도입한 감상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학습자들의 사고를 중시하는 가운데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감상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안내자, 도우관, 가이드,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안내자의 역할이란 학습자 현재의 수준보다 약간 높으면서도 교사나 동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해 갈 수 있는 수업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 이러한 도움활동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지만 학교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확산적 질문을 통해 자극되어질 수 있다. 또한 감상활동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지향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들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맥락으로 볼 때,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의 교수-학습 보조 자료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상교육에서 도움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워크시트(Work Sheet)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감상 보조 자료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장점

워크시트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작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테마 등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전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거나 작품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게 하는 감상학습지의 일종으로, 팜플렛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보다 적극적인 보조 매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감상 보조 자료로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장점으로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제작이 간편하다.

워크시트(Work Sheet)는 대개 낱장의 형태로 제작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므로 제작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한 번 만들어진 자료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더 나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학습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워크시트(Work Sheet)는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수업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내용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활용도가 높다.

워크시트(Work Sheet)는 다른 보조 매체에 비해 도입시기가 자유로우며 교사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넷째, 경제성이 높다.

워크시트(Work Sheet)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친숙하다.

인쇄매체는 학습자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매체를 접함에 있어서 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포트폴리오로 이용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작성한 워크시트(Work Sheet)를 지속적으로 모아 두어 하나의 워크시트북(Work Sheet Book)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한 과정의 산출물로서 의미가 있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주기적인 피드백으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교사에게도 학생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V. 미술 감상교육에서의 워크시트(Work Sheet)의 활용

##### 1. 미술관 워크시트(Work Sheet)

미술관에서의 워크시트(Work Sheet)는 미술관 감상의 가이드(Guide)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셀프 가이드(Self-Guide)로의 접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셀프 가이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개발해 관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기 감상용 자료이다.<sup>8)</sup>

이것은 ‘감상활동 시트북’, ‘워크시트(Work Sheet)’, ‘가족용 셀프 가이드(family Self-Guide)’ 혹은 ‘퀴즈(Quiz)’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감상 도구로서 구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자기 감상 교육용 자료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상 안내용 자료는 성인들보다는 주로 어린 학생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경향이다. <sup>9)</sup>

미술관 감상에서 워크시트는 감상활동의 길잡이로 감상자에게 구체적 관람 동선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감상 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감상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감상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 2. 학교 워크시트(Work Sheet)

---

8) 박휘락,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한 감상용 Self-Guide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pp.151-195

9)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2003, p.420

학교의 워크시트와 미술관 워크시트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기능상 성격을 조금 달리 한다. 학교의 워크시트는 구성주의적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인수 학급에서 학습자 개개인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우리의 학습 환경에 워크시트는 교수자를 대신하여 사고하는 과정을 돕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도와주며 수업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현장에서 평가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로서의 과정 평가가 가능하며, 학생이 작성한 워크시트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V.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

### 1.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 유형

#### 1) 형식에 의한 분류

워크시트는 수업 제재, 목표, 주요 학습 내용, 학습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워크시트는 이러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조력자로서 교과서의 획일화된 구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성, 무엇보다 학습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 사태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낱장의 형태로 제공되는 워크시트(Work Sheet)는 묶음으로도 제공될 수 있고 그 크기 비율을 달리하여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A4 사이즈, B4 사이즈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도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접기의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접기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도 있다.

#### 2) 내용에 따른 분류

워크시트를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내용에 따라 교사 제시형과 학습자 기입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제시형은 교사가 학습자의 사고를 돕거나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워크시트 내에 내용을 기술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심화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간단한 조직표로서

학습정리를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판이나 일러스트, 만화 등과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 이밖에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감상할 작품의 제작배경, 시대상황, 작가의 생애, 작품의 특징, 용어의 설명, 제작 방법, 재료의 탐색 등 다양한 자료와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 기입형은 학습자가 직접 워크시트에 작성하는 유형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관심을 고려하여 학습상황에 적절한 발문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 기입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서술식, 단답식, 객관식), 감상 후 느낀 점 적기, 모사하기 또는 스케치하기, 그림 변형시키기, 이야기 만들기, 퀴즈, 퍼즐, 색칠하기, 그림 찾기 등 교사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방법을 창안하고 제시할 수 있다.

## 2.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

### 1) 수업 절차 모형

모든 수업에는 계획이 따른다.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수업은 더더욱 주의 깊은 계획이 필요하며 교사의 최종 목표, 기술과 방법, 효과적인 매체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워크시트를 보조 매체로 사용할 경우에도 세심한 절차에 따른 계획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업 절차의 구성을 위해 제시된 학습 모형으로, 수업매체와 자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만들어진 절차모형으로 ASSURE모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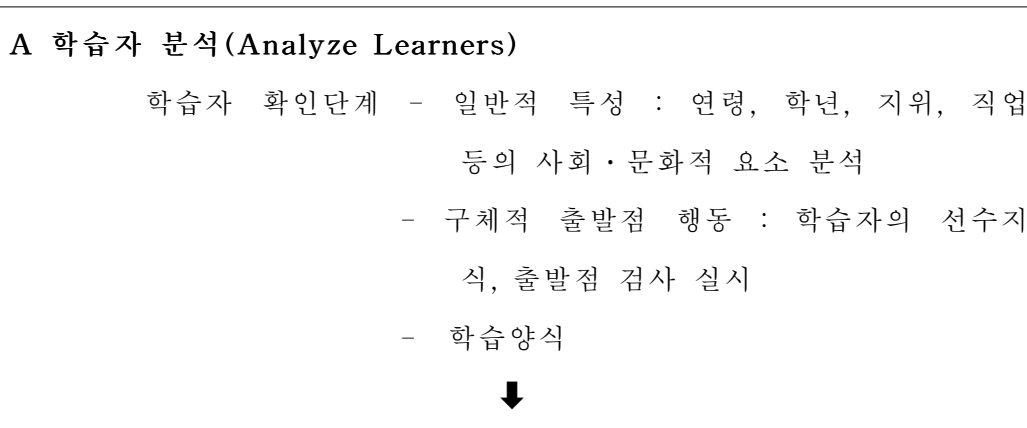
ASSURE란 학습자 분석(Analyze Learners), 목표 진술(State Objectives), 방법·매체와 자료 선정(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매체와 자료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s), 학습자의 참여 요구(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평가와 수정(Evaluate and revise materials)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짜임새 있는 수업을 보증한다는 의미도 내포

하고 있다.

ASSURE 모형은 매체와 공학을 교실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모형은 수업 체제 설계의 전체 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의 수업 개발 모형보다 덜 거창하다. 그러한 모형은 ASSURE 모형의 절차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요구 분석, 교과 분석, 매체 설계, 시제품(prototype) 실연, 체제 실행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보다 큰 규모의 수업 개발 절차는 전형적으로 전문가 팀을 포함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반면에 ASSURE 모형은 개별 교사가 매체와 공학을 학급에서 사용하려고 계획할 때 적용하기 알맞다.<sup>10)</sup>

워크시트 제작 과정에 앞서, 수업 과정에서의 워크시트의 제작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워크시트의 계획절차를 ASSURE(Heinich, 1996) 모형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ASSURE(Heinich, 1996)모형<sup>11)</sup>



10) Sharon E. Smaldino, James D. Russell, Robert Heinich, Michael Molenda,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Media for Learning. 설양환 외 7명 옮김. 『교육공학과 교수매체』, 아카데미프레스, 2005, p.62

11) 박숙희 엮명숙 공저, 『교수. 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2, p.190,

**S 목표 진술 (State Objectives)**

명세적인 목표 진술 - 학습자가 수업에서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한 진술



**S 방법, 매체와 자료 선정(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주어진 학습과제를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매체결정

1. 기존 자료 선택
2. 기존 자료 수정
3. 새로운 자료 창안



**U 매체와 자료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s)**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와 매체의 사전준비

시설이나 학습 환경의 준비



**R 학습자의 참여 요구(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E 평가와 수정(Evaluate and revise materials)**

평가(학습자 성취도, 매체, 수업방법) 및 수정

평가 자료를 통한 피드백 제공

워크시트는 ASSURE(Heinich, 1996) 모형을 적용할 때에 목표 진술단계 후 방법 및 매체와 자료 선정 단계에서 그 제시모형과 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사가 창안하거나 미리 만들어 둔 워크시트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2) 워크시트(Work Sheet) 제작모형

감상 보조 자료로서의 워크시트 제작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 표 2 >와 같다.

< 표 2 > 워크시트 제작 과정

<b>계 획</b>	수업 목표에 따른 감상목표 설정
	감상관점 및 학습범위 설정
	학습내용 선정 (작가, 작품, 유파, 용어 등)
<b>제 작</b>	관련자료 탐색 (내용, 도판)
	워크시트 유형 결정
	구체적 자료의 선정 (내용, 도판 등)
	선정한 내용의 정련, 발문 작성 및 관련도판 삽입
	워크시트 가안 작성

수 정	수정 및 보완
완 성	인쇄

워크시트는 수업목표에 준하는 감상목표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수업 상황에서 학습목표를 명세화하는 일은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교수매체를 제작할 때에도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적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상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맞추어 감상관점을 정하고 학습의 범위를 설정한다. 선정된 관점과 범위에 따라 학습의 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탐색한다. 자료 탐색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 이후에 비교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를 탐색한 후에는 워크시트의 외·내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유형을 선택한다. 선택된 유형에 맞추어 교사에 의해 자료가 선별되는데 이 때 자료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정확해야 하며 도판은 내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화질이 좋은 자료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정된 자료를 정련하고 제시할 내용을 작성하며 다양한 학습유형에 따라 발문을 구성해야 한다. 발문은 요점이 정확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산적 발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에 따른 발문이 정해지고 도판이 정해지면 워크시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목적이 워크시트의 작성에 있으므로 모든 단계들 중에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정된 자료들을 어떻게 레이아웃 하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워크시트는 본래 학습자의 시각에 집중되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시각 디자인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효과적인 매체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할과 매력적인 시각자료를 디자

인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또한 일임해야 한다. 적극적인 워크시트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시각 디자인의 적용

워크시트에 시각 디자인의 원리가 적용되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 가독성을 높인다.
- 능동적인 참여를 이끈다.
-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다.
-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미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기억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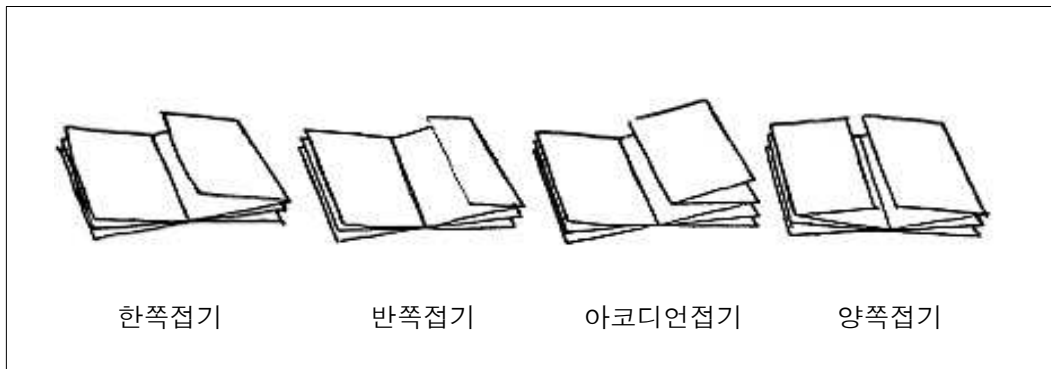
교사가 제작하는 워크시트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적 능력이 적용된다는 의미보다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워크시트 제작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의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트의 접기

워크시트의 스타일은 진술한 바와 같이 낱장의 형태, 묶음의 형태, A4 사이즈, B4 사이즈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접기의 기법은 기본적으로 한쪽 접기, 반쪽 접기, 양쪽 접기, 아코디언 접기가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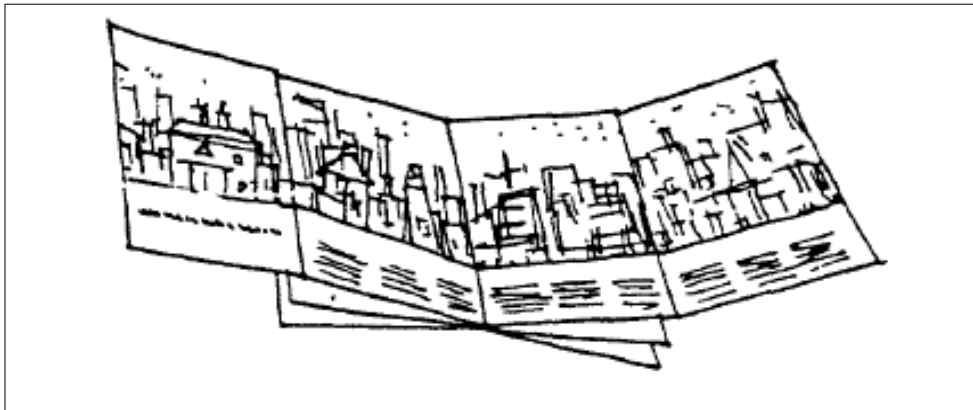
12) 켈화이트 저, 김옥철 역, 『편집디자인』,안그래픽스, 1999, pp.76~77



< 그림 1 > 접기의 예

a. 한쪽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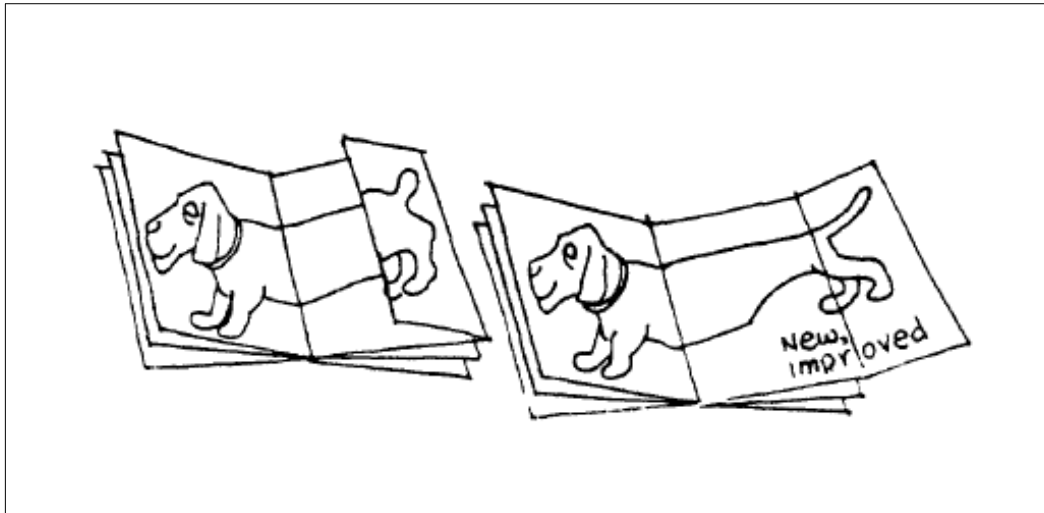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방법인 한쪽 접기는 한 날쪽을 접는 것으로 이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라도 무방하다. 날장의 워크시트에서 가장 쉽게 변형시킬수 있는 디자인이다.



< 그림 2 > 한쪽 접기의 예

b. 양쪽 접기

양쪽 접기는 주의를 요구하는 자료에 매우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반쪽 접기의 장점은 펼치는 순간 반쪽 지면에 있는 이미지와 접혀져 있었던 이미지의 관계가 하나로 나타날 때의 놀라움에 있다.



< 그림 3 > 양쪽 접기의 예

이 밖에도 앞의 방법을 응용한 수직으로 긴 것, 수평으로 긴 것이 있으며 종이의 형태 역시 세로로 긴 직사각형에서 벗어나 정사각형, 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 사변형 등 다양한 응용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접기는 획일화되거나 규격화된 기성의 방식에서 벗어나 그 형식만으로도 학습자의 주의를 흥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② 사진 및 도판의 선택과 배치

#### a. 사진 및 도판의 선택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사진이나 도판은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진이나 도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양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이란 사진이나 도판의 옳고 그름, 사실성 여부가 아니라 그것의 속성, 출처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자료의 하나로 쓰이는 사진이나 도판은 그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수 매체에 쓰이는 자료는 완벽한 사실성이 아닌 적절한 사실성을 요구한다. 교사는 사실적인 사진이나 도판, 비사실적, 추상적인 사진이나 도판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양질성은 사실성 여부와 다르게 사진이나 도판 그 자체의 질과 관련이 있다. 워크시트에 쓰이는 사진이나 도판은 인쇄를 고려하여 가능한 화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작은 사이즈의 것일 경우 확대되었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 b. 사진 및 도판의 배치

사진이나 도판의 배치는 워크시트 레이아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한 자료의 중요도, 자료의 크기, 교수-학습의 흐름, 교사의 의도에 의한 내용의 강조, 여백의 고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진 및 도판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가 선정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있다. 사진이나 도판을 훌륭하게, 매력적으로 제시함에 있어 학습자의 빠른 정보이해를 도울 수 있다.

큰 사진이나 큰 도판은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작은 도판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크기의 대소를 조절하여 제시할 수 있다. 크기에 변화를 줌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통일성이다. 변화가 지나치면 산만해 보여 오히려 학습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통일성이 유지되는 상태 하에 변화를 주어 강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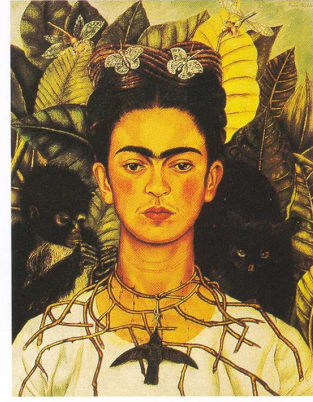
또한 사진이나 도판의 배치는 교수-학습의 흐름에 맞추어서 제시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배치에 있어서 크기, 흐름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백이 있다. 미술 표현에서 여백은 화면의 조형성을 살려주는 요소로 워크시트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여백은 미술 표현에서와 같이 잠정적 공간의 표현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남겨진 휴식의 공간이며 본문이나 사진, 도판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워크시트에서 여백은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의미도 있다. 나아가, 학습자는 여백을 이용하여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백 역시 균형과 조화,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진이나 도판처럼 인식되어야 한다. 여백을 잘 활용하면 직사각형의 기본형 워크시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접기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도판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빈손 가족(유채/172.7×172.7cm/1965년 작)  
보테로(Botero, Fernando/1932~ /콜롬비아)



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상(유채/62.3×47.6cm/1940년 작)  
프리다 칼로(Frida Kahlo, Magdalena Carmen/1907~1954/멕시코)



루앙의 고아(유채/  
65.5×54.3cm/1823년 작/부분)  
달라크루아(1798~1883/프랑스)



검은 형아리가 있는 자화상(유채/  
27.5×34cm/1911년 작/부분)  
실레(1890~1918/오스트리아)



알공의 성모(유채/189×120cm/  
1508년경/부분)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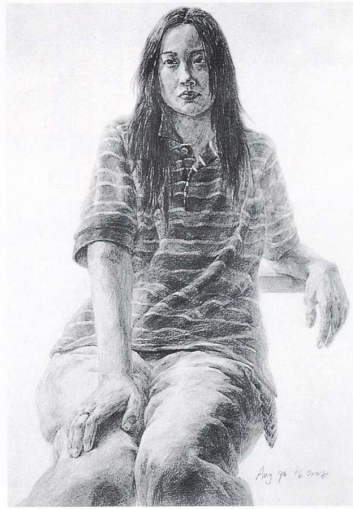
마릴린 먼로(유채/91.5×91.5cm/  
1967년 작/부분)  
워홀(1928~1987/미국)



달리 샬러드(종이에 리도그라프/  
67×70×5cm/1980년 작/부분)  
그로스(1937~ /미국)



친구(파스텔/84×66cm)  
차유빈(학생 작품)



친구(연필/63×42cm)  
신수정(학생 작품)

< 그림 4 >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도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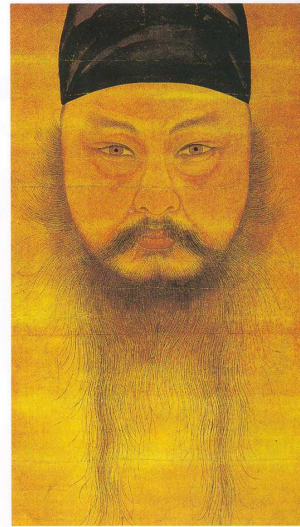
대한 교과서 『미술과 생활』 p.75

< 그림 4 > 의 도판 배치는 ‘다양한 인물표현’이라는 단원으로 재료와 기법을 달리 하여 그린 인물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상단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흥미 있는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제시하고 가운데에는 다양한 인물표현이 나타난 도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작품 전체를 감상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따른 인물표현의 감상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보다는 부분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사진을 잘라야 함에 있어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사진을 여러 장 배치할 때에는 인물들의 머리 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여러 장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판 속의 인물의 시선 방향을 고려하여 시선의 흐름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게 배치해야 한다. 하단부에는 학생들의 작품을 가장 크게 배치하여 학생들이 제작해야 할 학습내용의 예시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 그림 5 >의 도판은 다양한 시대·사조 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들을 배치한 교과서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강조하기 위해 윤두서의 <자화상>을 가장 크게 배치하고 자신의 얼굴 표현이라는 제목 하에 자화상을 그린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성이 독특하게 구별되는 도판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회화에서 조소 작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사진의 배열에 있어서도 통일감을 잃지 않으면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도판의 시선에 따른 흐름과 색에 의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조화롭게 느껴진다.

시대는 항상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예술가들을 탄생시킨다. 미술가들은 자신의 모습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마음속까지 내비치게 그리기도 하고, 변형하거나 독특한 색채와 질감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기도 한다.

- 사실적인 표현이나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비교, 감상해 보자.
- 형과 색이 주는 느낌은?
- 표현 재료와 기법이 주는 효과는?
- 작가들의 삶과 관련지어 작가가 자신을 표현한 작품의 표현 특징을 토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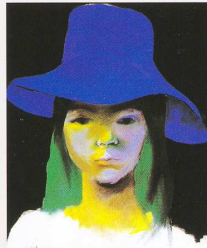


자화상(수묵 담채/38.5×20.5 cm) 윤두서(1668~1715/조선 시대)  
수염의 섬세한 선묘와 강렬한 눈빛이 조화되어 인생을 성찰하는 내면의 정신적 세계까지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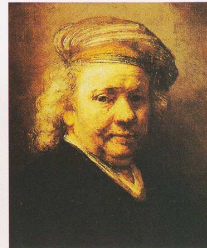
자신의 얼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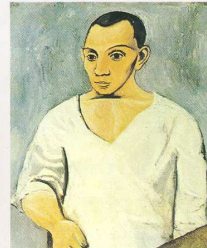
고흐(유채/60×49 cm/1889년 작)



최옥경(파스텔/61×46 cm/1967년 작)



렘브란트(유채/63.5×57.8 cm/1669년 작)



피카소(유채/92×73.6 cm/1906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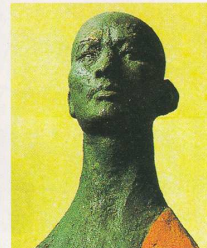
황주리(아크릴/116.8×91 cm/2000년 작)



모릴리마니(유채/89.5×80 cm/1919년 작)



베이컨(유채/36.5×30.5 cm/1969년 작)



권진규(테라코타/17×16×26 cm/1966년 작)

< 그림 5 >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도판 배치

대한 교과서 『미술』 p.13

### ③ 색

미술과 워크시트에서의 사진이나 도판의 생생함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색이다. 색으로 이루어진 사진이나 도판이 흑백으로 제시된 것보다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시트에서의 색은 매우 중요하다. 색의 요소 역시 형태적 요소처럼 내용상의 강조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요소이다. 워크시트에서의 색의 활용은 컬러의 사진과 도판이 제시될 때에 화면에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 그림 6 >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색의 활용

대한 교과서 『미술』 pp.36~37

< 그림 6 >은 바탕색의 효과를 이용한 예로 바탕색을 검은 색으로 통일시켜 사용된 도판의 특색을 잘 살리고 있다. ‘빛과 영상의 세계’ 라는 제목

하에 쓰인 도판들은 검은색으로 제시된 바탕에 의해 그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도판 < 그림 7 >을 보면 같은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빛과 영상으로**

**빛을 이용하여**

●전자 영상 정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영상 매체들을 활용한 시청각적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새 미디어 시대의 창의적 시각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현대 미술은 오늘날 기술 산업 사회가 개발하는 여러 새로운 물질과 기술을 도입하고 접목하여 날로 새로운 표현적 매체를 개척해 오고 있다.

빛의 작용과 현상은 시각 예술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다. 현대에 와서도 빛은 독특한 예술적 모티브로 발전하는데, 이는 전기·전자 영상 기술의 발달과 뗄 수 없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 낸 창조적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비디오 아트**

영화 이후 개발된 TV는 대단한 영상적 호소력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대중 사회를 깊이 파고들고 있다.

비디오 아트는 대중적 영상 매체를 새로운 예술적 감성으로 접근하는 창조적 발상에서 탄생했다. 방법적으로는 영화의 기법에 가까운 '비디오 테이프' 작업과 조각적 모습을 한 '설치 비디오'라는 형식이 있다.

이보다 앞서, 전기를 이용한 빛의 현상을 조각적 작업에 끌어들이고 소리와 움직임까지 활용하여 '라이트 아트'라 불리는 움직임도 있다. 또 최근에는 홀로그램이라



①무제(양행주, 1997~2000), 플래빈(Flavin, Dan, 1933~ 미국)  
— 전시장에서 작품을 밝히던 조명이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로 작품이 되고 있다.



②비린 식물(시스, 1991), 28.5×34cm,  
시스(Schiss, Christian, 프랑스)



③주목(데이브, 1986), 카라반  
(Karavan, Dani, 1930~ 이스라엘)



④전자 초고속 도로(미국 대륙(비디오·네온, 450×975×12cm, 1995), 백남준(白南準, 1932~ 한국)

36

< 그림 7 > 현행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색의 활용  
천재교육 교과서 『미술』 pp.36~37

#### ④ 본문작성 및 배치

현 교육과정의 수업 중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비교하여 아직도 획일적이다. 서체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워크시트에서는 그 성격이 보조 자료임에 따라 교과서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워크시트 서체의 선택에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 하에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서체와 강한 시각적 효과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가독성이다. 이는 모든 인쇄매체에 적용되며 워크시트라는 교수 매체에는 더욱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가독성이란 글자의 내용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서체, 글자 간격, 행간, 띄어쓰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워크시트의 본문을 구성할 때에는 인식하기 쉬운 형태의 글자체를 선택하고 글자체의 변화를 주되 산만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조형성을 고려하여 서체를 선택하고 배치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4월 11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가독성, 심미성을 높인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방안’<sup>13)</sup>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 방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판형·서체·편집 배열을 자율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리부도, 미술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4x6배판으로 한정돼 있는 교과서 판형이 국판, 4x6배판, 국배판, 국배배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해지며, 미술교과는 교과 특성상 변형판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서체는 현재 대부분 명조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과서 집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본문 용지는 일본 교과서용

13)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 방안』, 2006

지 수준인 신개발 고급 교과서 용지(75g/m<sup>2</sup>)를 사용하여, 평량은 낮추고 백색도·불투명도·광택도·평활도 등은 높혀 책가방의 무게는 줄이되 인쇄 효과는 좋게 하였다. 교과서 표지는 아트지 250g/m<sup>2</sup>용지에 UV코팅 처리하여 교과서 표지의 잉크와 종이가 벗겨지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인쇄 효과도 좋게 하였다. 기타 면지, 화보, 부록 등 부속물은 출판사 자율에 맡겼다. 색도는 현재 4가지, 2가지 색을 섞어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과서의 색도를 4도로 상향 조정하여 원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편집디자인 분야를 경시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재미 있고 읽기 편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편집 디자인 분야를 대폭 강화하였다. 국정도서의 경우 집필단계에서부터 편집디자인을 염두에 둔 집필이 될 수 있도록 편집디자인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키고, 검정도서의 경우도 편찬상의 유의점에 편집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검정심사위원회에 편집디자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검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교과서 외형체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발행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질은 2007년 1학기용 교과서부터, 판형·색도·서체·편집 배열·편집디자인 등은 차기 교과서 개편 시(2009년) 적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개선안은 시각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교과에 적용된 것으로 학생들의 시지각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

14) 교육인적자원부, 상계서 요약, 2006. pp.1~3

< 표 3 >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 방안 I (요약)<sup>15)</sup>

구 분	현 행	개 선
판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6배판</li> <li>◦일부교과(지리부도, 미술 등) : 국배판 또는 국배배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판, 4×6배판, 국배판, 국배배판 중 선택</li> <li>※ 단, 변형판은 불허하되 미술교과는 허용</li> </ul>
지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문 -서적지 70g/m<sup>2</sup>(2도), 80g/m<sup>2</sup>(4도)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아트지 등 고급 용지 일부 사용</li> <li>◦표지 -초등: 엠보싱 240g/m<sup>2</sup> -중등: 엠보싱 220g/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문: 신개발 고급교과서지 75g/m<sup>2</sup> (일본 교과서 용지 수준)</li> <li>- 단, 학습장 형태의 교과서 : 서적지 80g/m<sup>2</sup></li> <li>◦표지 : 아트지 250g/m<sup>2</sup>에 UV코팅</li> </ul>
색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 전학년 전교과 4도 - 단 사회과부도 6도</li> <li>◦중등 - 2도가 64%, 4도가 35%, 기타 부도가 6도로 1%</li> <li>◦지도서 - 1도와 2도가 있으나, 기준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4도를 원칙 - 2도인 교과서는 4도로 상향 조정 - 6도인 부도는 현행 유지</li> <li>◦지도서는 2도</li> <li>◦특수학교는 4도로 상향 조정</li> </ul>
서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체는 대부분 명조체 사용</li> <li>◦서체의 크기 - 초등 12pt - 중학교 11pt - 고등학교 10.5pt</li> <li>◦편찬상의 유의점에 기준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집필자가 자유롭게 선택 사용</li> </ul>
쪽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량, 책의 무게,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리부에 서 기준 쪽수를 정하고, 검정도서는 기준 쪽수에 20%가감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유지</li> </ul>
편집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지→면지→속표지→차례→본문→ 부록으로 배열</li> <li>◦2도이내의 교과서는 면지와 속표지 사이에 4 쪽 이내의 화보 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집필자 에게 자율성 부여</li> <li>◦현행 유지</li> </ul>
편집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교육전문가들이 교과서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편집디자인 분야 경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도서 : 집필진에 편집디자인 전문가 포함</li> <li>◦검정도서 : '편찬상의 유의점'에 편집디자인 분야 보강 및 검정 강화</li> </ul>

15)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2006, p.4

< 표 4 >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 방안 II 16)

요 소 교 육 과 정	관 형	지 질	색 도	서 체	쪽 수	편집디자인
개정 및 교 수 요 목 기 (40~50년 초)	▪ 국판(5·7원칙) ▪ 4·6, 5·6, 4·6배판 혼용	▪ 본문: 마분지, 갱지(45g/m <sup>2</sup> ) ▪ 표지: 모조지, 마분지	▪ 본문: 단색(먹) ▪ 표지: 단색, 원색	▪ 9pt	▪ 50쪽(첫걸음)~20 0쪽(중학국어) ▪ 일정하지 않음	▪ 개념 무 ▪ 인쇄 측면에서 행수·자간 등만 언급
제1차 교 육과 정 기 (50년대)	▪ 상동	▪ 본문: 갱지 (31~68g/m <sup>2</sup> 다중) ▪ 표지: 120근 후지(厚紙)	▪ 본문: 단색 (초등학교 1학년은 원색) ▪ 표지: 단색, 원색	▪ 초등: 14pt에서 20pt까지 다양 ▪ 중등: 12pt ▪ 고등: 10.5pt	▪ 각급 학교별, 교과목에 따라 기준 다름 (50쪽~250쪽)	▪ 상동
제2차 교 육과 정 기 (60년대)	▪ 국판 원칙 (4·6배판에서 5·7배판으로 이동) ▪ 4·6배판 일부 사용	▪ 본문: 갱지 (31~68g/m <sup>2</sup> 다중) ▪ 표지: 120근 후지 등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사진, 삽화 계 제 등에 조형성 있게 배치 제시)
제3차 교 육과 정 기 (70년대)	▪ 국판 위주 ▪ 음악, 미술, 부도 등은 4·6배판	▪ 본문: 미색 갱지(55g/m <sup>2</sup> ) ▪ 표지: 엠보싱(180g/m <sup>2</sup> )	▪ 본문: 단색 (초등 저학년은 원색) ▪ 표지: 원색	▪ 상동	▪ 기준쪽수 5% 가감 ※ 중등 평균 202쪽	▪ 상동 (학습효과를 올 리도록 적절히 배려)
제4차 교 육과 정 기 (80년대)	▪ 초등 1,2학년 : 4·6배판 ▪ 초등 3,4학년 : 국판 ▪ 중등: 국판 원칙	▪ 본문: 중질지 (70g/m <sup>2</sup> ) ▪ 표지: 엠보싱(260g/m <sup>2</sup> )	▪ 본문 - 초등: 원색 - 중등: 단색 ▪ 표지: 원색	▪ 상동	▪ 기준쪽수 10% 가감 ※ 중학 평균 100쪽 ※ 고등 평균 214쪽	▪ 상동
제5차, 제6 차 교 육과 정 기 (90년대)	▪ 초등: 4·6 배판과 국판과 혼용 ▪ 중등: 국판, 크라उन판, 4·6배판 혼용	▪ 본문: 중질지 (70g/m <sup>2</sup> ) ▪ 표지: 백상지(220~230g/ m)	▪ 초등: 원색 ▪ 중등: 1~3도	▪ 초등: 학년에 따라 차이 ▪ 중학: 주활자 11pt(11~16pt) ▪ 고등: 주활자 10.5pt (10~16pt)	▪ 상동	▪ 상동 (다양한 편집 기법 등 활용 제시)
제7차 교 육과 정 기 (2000년대)	▪ 초등: 4·6 배판 ▪ 중등: 4·6 배판 (일부 국배판)	▪ 본문: 서적 70 고급서적 80g/m <sup>2</sup> ▪ 표지: - 초등: 엠보싱 240g/m <sup>2</sup> - 중등: 엠보싱 220g/m <sup>2</sup>	▪ 본문 - 초등: 4도 - 중등: 2~4도 ▪ 표지: 4도 ※ 부도: 6도	▪ 초등: 상동 ▪ 중학: 11pt ▪ 고등: 10.5pt	▪ 기준 쪽수 20% 가감	▪ 편집디자인 개념 도입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활자그레 픽, 사진·그림 등 구체적 내용 제시)

16) 교육인적자원부, 상계서, 2006, p.5

다음으로 워크시트의 내용 구성에 대해 언급 하면, 자료들은 어떻게 레이아웃 하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워크시트의 제작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편집디자이너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 3. 워크시트의 내용 구성

#### 1) 내용 구성상의 유의점

워크시트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제시한다.
-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
-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 원활한 흐름으로 구성한다.
- 분량을 최적화한다.

워크시트의 내용 선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경험에 기초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원활한 흐름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 분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자료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는 자료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워크시트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돕는 보조 자료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2의 교사로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심화·보충학습을 통해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심화·보충학습 자료로서의 워크시트는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현행 교과서를 통한 학습활동은 흥미로운 발문으로 탐구심을 자극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획일적인 물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획일적인 물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워크시트에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확산적 사고의 발문을 중요시 한다. 다음으로는 워크시트에서 쓰일 수 있는 발문의 유형에 대해서 언급한다.

#### 4. 워크시트에서의 발문

교사의 발문은 학습자의 사고활동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학습과정의 견인차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드백의 수단이며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유발하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의 하나로서 수업목표를 향하여 학습자의 사고 및 논리를 자극하고 발전시켜 가는 데 기여한다. 또한 발문은 학생으로 하여금 탐구를 지향하게 하고, 독자적 탐구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업기술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7)

교사는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상황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고 자신의 성취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한 방안으로 공감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확산적 발문이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대답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발문이다. 확산적 사고에 의한 발문의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며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 학습자는 생각의 여지를 제공하는 확산적 발문을 통해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산출할 수 있다.

---

17) Corey, 1997; 박병학, 1986. 최은영. 「사설기관의 유아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2005. p.29 재인용

이러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의 유형을 오감에 기초하여 아래에 제시하여 본다. 오감에 의한 분류는 작품에 대한 접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각적 인지능력이 계발 학습될 수 있는 것이며 성장과 함께 발달하는 것이라 상정하여 볼 때, 비교적 시각적 인지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 즉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습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집중을 요하게 하여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효율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1) 오감에 기초한 사고의 자극

##### 시 각

- 그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관련짓기
- 등장인물들의 행동 행위를 유추해 보기
- 장소에 대한 물음
- 계절에 대한 물음
- 시간에 대한 물음
-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물음
- 지나치기 쉬운 작은 부분 들추어내기
- 전체적인 색, 형에 관한 물음
- 재료 유추해 보기
- 첨가하고 싶은 것에 대한 물음
- 어울리는 단어 찾아보기
- 가격 측정하기
- 배경 첨가하기

##### 청 각

- 그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물음
- 등장인물의 대화 유추하기

- 어울리는 음악 찾기
- 배경음악 삽입하기

#### 축 각

- 재료에 의한 질감 유추하기
- 질감에 의한 느낌에 대한 물음
- 질감 전환하기
- 편안함, 불편함, 안락함 에 대한 물음

#### 후 각

- 그림에서 느껴지는 냄새 맡아보기
- 냄새 유추하기

#### 미 각

- 맛 유추하기
- 먹어본 일이 있는지 마셔본 일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물음
- 음식에 대해 평가하기

2) 발문 사례  
( 초등학교 )



<도판1><네페르티아벳 공주의 기념비> BC 2590, 석재, 37.5 x 52.5cm

등장인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등장인물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품 속에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 지 찾아볼까요?

등장인물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재질일까요?

작품에 그려져 있는 선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작품을 만져봅시다. 어떤 느낌이 나나요?

작품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작품 속의 시간은 하루 중 몇 시 일까요?

작품에 이름을 붙여볼까요?

배경에 색을 칠한다면 어떤 색으로 칠하고 싶나요?

등장인물과 어울리는 친구를 그려볼까요?



<도판2><노상파안> 조선후기, 김홍도, 종이, 28.1 x 23.9cm

작품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지어봅시다.

등장인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까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몇 마리의 동물이 보이는지 세어볼까요?

배경을 그려볼까요?

그림 속으로 무언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타고 가겠습니까?

지금은 몇 시 일까요?

### 3) 반응의 형성을 위한 발문

위의 발문사례는 오감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수준은 초등학교의 목표에 부합되는 기초 기본 능력의 향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발문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비교적 고학년의 학생들보다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저학년의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반면 중학교 이상 고학년의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내용의 발문은 오히려 과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습에 대해 싫증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적절한 과제의 난이도는 학습자에게 성취동기를 불러일으켜 학습하려는 의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의 미술 감상 수업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학습자에게 펠드먼의 비평단계<sup>18)</sup>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 펠드먼의 비평 절차는 오래전부터 학습에 도입되었으며 이 방법은 현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7차 미술과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다.

펠드먼의 비평방법은 설명-분석-해석-판단의 과정을 거치며, 이 비평단계의 설명 단계에서는 일체의 개인적인 반응을 배제하고 감상자가 지각하는 객관적인 것만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러한 객관적인 측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분석으로 치우친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감상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8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시안<sup>19)</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술 교과 목표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귀납적 사고

---

18) 70년대부터 학습에 도입된 비평단계. 1단계, 설명 또는 묘사단계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성을 지니고 기술한다. 2단계 분석단계에서는 작품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크기, 형태, 색, 질감 등 시각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들에 대해서 기술한다. 3단계 해석단계에서는 관찰한 모든 것을 토대로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4단계 평가단계는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단계이다.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계서, 2006. p.14

법, 직접 교수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반응중심 학습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학습 방법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었던 모형으로 8차 교육과정에서 적극 권장된다.

또한 미술 감상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펠드먼의 감상 방법과 유사점이 있는 반응중심 학습법을 들 수 있다.

반응이란 용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방향을 전환 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즉 반응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규진은 ‘반응의 형성(학습문제 확인, 배경지식이나 경험의 활성화, 작품개관 및 작품읽기) → 반응의 명료화(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의 표현, 반응에 대한 토의(질의와 응답), 토의 내용 정리(반성적 쓰기, 그리기 등) → 반응의 심화(다른 작품과 관련짓기(작품 개관 및 읽기), 토의하기) → 반응의 명료화’로 제시하였다.<sup>20)</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 > 반응중심 학습모형 절차<sup>21)</sup>

과 정	주 요 활 동
반응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문제 확인</li> <li>· 배경 지식이나 경험 활성화</li> <li>· 작품 개관 및 작품읽기</li> </ul>
반응의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표현</li> <li>· 반응에 대한 토의(질의/응답)</li> <li>· 토의 내용 정리(반성적 쓰기, 그리기 등)</li> </ul>

20) 김재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모형』 한국초등국어교육16권1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0, pp.113~116

반응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작품 개관 및 읽기)</li> <li>· 토의 하기</li> </ul>
반응의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화 가능성 탐색</li> <li>· 일반화</li> </ul>

반응중심 학습모형에서는 켈드먼의 단계와는 달리 ‘반응의 형성’ 단계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하여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연상작용을 중시한다. 이 절차는 이러한 점에서 켈드먼의 비평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입단계에서의 형식적 출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반응중심 학습모형에 기초하여 중학교 이상의 학습자에게 반응형성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반응의 형성

-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 이 작품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 작품에 사용된 색은 어떤 느낌을 불러오나요?
- 가장 먼저 내게 와 닿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내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작품에 대한 첫 느낌을 말해보시오.
- 작품의 색은 어떤 느낌을 불러오나요?

---

21)이준호, 『효율적인 ICT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18

- 과거에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본 적이 있나요?
- 이 작품에서 다른 작품과는 다른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나요?
- 나의 시선을 끄는 형이 있나요?
- 나의 시선을 끄는 색이 있나요?

이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발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하고 감상학습의 시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

## 5. 완성된 워크시트 표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종합으로서 효과적으로 제작된 워크시트 표본을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한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워크시트의 유형은 학교 현장에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표본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교수·학습상황을 반영하여 교사가 적절하게 구성·창안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워크시트는 기획 전시에 쓰여 졌던 것으로 해당 전시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가 끝난 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워크시트는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앞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면은 가로로 3등분 하여 3단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학생들이 전시장 관람 시 쉽게 휴대가 가능하도록 크기를 고려했다. 테마별로 주요색을 설정하여 제작되어 졌고, 이는 각각 자료의 차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 워크시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은 크게 자유기술 방법과 질문에 답을 하는 확인학습으로서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기술 방법이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주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으며,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질문은 미술품에 대한 설명문이나 시대상황 등을 밝힌 제시문과 함께 쓰여 감상을 한 뒤 확인 할 수 있는 평가로서 제시되고 있다. 또

한 도입-학습-마무리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감상법과 부분 확대 감상법을 이용 하였으며 학습자의 관람 동선을 제시하기도 한다.

국립 중앙 박물관 워크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구성이다. 큰 제목으로 ‘보물 찾는 뚜벅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근한 구어체의 설명문과 발문이 제시되고 오감에 기초하여 의성어와 의태어를 풍부하게 사용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식 미술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문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흥미로운 퀴즈식 질문도 제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워크시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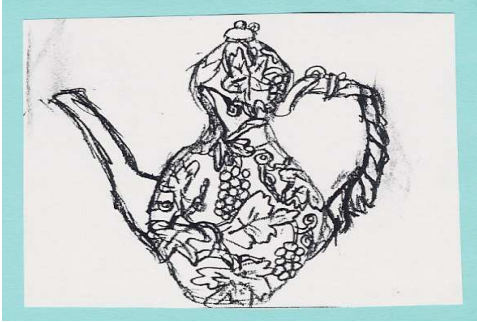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워크시트로 워크시트의 형식은 양쪽 접기로 되어 있으며, 눈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한 색채를 활용하여 아름답게 제작하였고 캐릭터의 사용으로 친근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워크시트는 필요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부모를 위한 워크시트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 제시할 사례는 2003년도에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도방안에 포함된 워크시트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듯이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식의 워크시트이다. 표 형식으로 되어있어 제작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워크시트를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부담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교사의 많은 업무와 부족한 시간 등의 이유로 워크시트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타 학교의 교사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어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자기 중심의 박물관 현장학습)	
년 월 일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문화재 이름	상감청자 주전자
만든 시대	고려시대
쓰인 곳	물이나 술을 담는 주전자
재료 및 만든 방법	청자에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나타낸 상감청자.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표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무늬를 파낸 뒤 그 패인 홈에 회색의 흙이나 다른 백토로 메우고 표면을 고른 후 유약을 입혀 구워내었다.
특 징	몸체는 조롱박 모양이고 그 표면에 포도와 포도잎, 포도덩굴이 가득 그려져 있으며, 손잡이는 포도덩굴을 본떠 꼬아 만들었다. 작은 뚜껑에도 포도덩굴을 표현할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답다. 색깔도 은은해 오래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스케치	
느낀점	우리 조상들은 숨씨가 참 뛰어나다. 그릇 하나하나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 모양 또한 가지각색이다. 배가 볼록한 매병은 꼭 임신한 사람의 배처럼 볼록하고 입구가 작다. 그러면서도 균형이 잡혀 아름답다. 나는 상감청자 주전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모양도 특이하고 색깔도 곱다. 다음에 도자기 체험을 간다면 이 모양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주전자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 그림 11 > 박물관 현장학습 워크시트 - 남원초등학교

감상 카드			
6학년 6번 이준 (박기현)			
작품 제목	높	작가	앙리 마티스
1. 첫 느낌	강하다. 신나게 춤추는 것 같다.		
2. 그림 속에 있는 것	붉은 색으로 칠해진 사람들, 언덕, 하늘		
3. 색, 형태, 선, 구도 등 특징	붉은색, 녹색, 파란색, 평면구도, 곡선, 원은 4타넷		
4. 표현 재료와 방법	물감, 붓으로 유화통감칠 칠해 칠했다.		
5. 다른 작품과 비교	다른 작품은 원근법, 입체적 느낌이 나타나지만 붉은 평면으로 되어있다.		
6. 화가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	민간의 즐거운 심리. 사물을 평면으로 나타냄.		
<p>※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기</p> <p>마티스의 작품 (춤)은 회고 단순한 그림이라 쉬워보일수록 걱정 내기 그리고 마티스의 평면구도를 따라해 보니 그러한 것은 쉬워보이긴 하지만 색칠하는데 어렵다.</p>			

< 그림 12 > 감상 워크시트 - 경상북도 교사연구자료

##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급되어 있는 교과용 보조 자료는 교사용지도서 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은 Big Book, CD-Rom, Assessment-masters, Art Safety & Technique Posters, Slide Sets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가 함께 개발되어 있으며 일본도 CD-Rom, 비디오테잎 등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점은 교수 매체에 대한 뒤떨어진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교수- 학습을 원활하고 효과적, 매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습자와 교사를 위한 교수 매체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워크시트(Work Sheet)는 가장 기본적인 교수 도움 자료로서 교수자의 많은 노력이 없이도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감상의 보조 자료로 쓰이는 워크시트의 장점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작의 간편함

기본적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 낱장의 형태로 제공되어 교수매체의 제작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번 만들어진 자료는 저장되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더 나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둘째, 다양한 학습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자료의 유연성이 높아 수정과 보완이 용이하므로 수업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형할 수 있고, 학습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내용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활용도가 높다.

워크시트는 다른 학습 보조 매체에 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사는

---

22) 박은덕, 유순아 한국교과서 연구원, 2000

워크시트의 활용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시기 뿐만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비단 미술과 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미술교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 또한 가능하다.

넷째, 경제성이 높다.

인쇄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포괄하여 비교적 타 매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친숙하다.

종이는 학습자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매체를 접함에 있어서 오는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

여섯째, 포트폴리오로 이용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작성한 워크시트를 지속적으로 모아 두어 하나의 워크시트북(Work Sheet Book)을 만들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미술과의 평가에서 권장되고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과정의 산출물을 수집·관리하는 학습법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 학습자에게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습 경험들이 하나로 모아져 교과서에 버금가는 또 다른 학습교재가 만들어 질수 있다고 보겠다.

워크시트는 매체의 성격에 맞게 기본적인 학습도우미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매체는 형식적인 매체가 아닌 학습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딱딱한 수업 상황, 획일화된 교수 매체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형식의 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교수-매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 김정 외.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1998
- 김춘일, 『미술교육론』, 기린원. 1989
- 박숙희 엄명숙 공저,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2
-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2003
- 이규선, 김동영, 외, 『미술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7
- 이은적 외. 『재미있는 미술 감상 수업』. 예경. 2004
- 젠화이트, 김옥철 역,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 1999
- E. B. 펠드만, 김춘일 역,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열화당, 1979
- Sharon E. Smaldino, James D. Russell, Robert Heinich, Michael Molenda,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Media for Learning. 설양환 외 7  
명 옮김. 교육공학과 교수매체, 아카데미프레스, 2005

### < 논 문 >

- 김재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0
- 박휘락,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한 감상용Self-Guide에 관한 연구』, 대구교  
육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 박휘락. 『감상교재의 분석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방책』. 초등교육연논  
총, 제10집, 239-278. 1997
- 이준호, 『효율적인 ICT 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2002

이주현, 『확산적 발문이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  
4학년 사회과 역사수업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박병학, 최은영. 『사설기관의 유아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례연구』. 2005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고승혜 외. 고등학교 미술. 두산. 2003

김정희 외. 고등학교 미술. 교육연구사. 2003

노영자, 이인숙. 고등학교 미술. 교학사. 2003

이윤구. 고등학교 미술. 삶과 꿈. 2003

이현표 외. 고등학교 미술. 대한교과서. 2002

한운성 외. 고등학교 미술. 금성출판사. 2002

홍명섭 외. 고등학교 미술. 천재교육. 2002

홍선표 외. 고등학교 미술. 시공사. 2002

교육 인적 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1997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 방안, 2006

# ABSTRACT

## How To Use 「Work Sheet」 For Efficient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Lee, Joohee  
Dept,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University

For contemporaries who live surrounded with too much visual inform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hoose, recognize, and respond to valuable information, and also to use in a different way and create such information. From the aspect of developing ability to receive visual information critically, the expected effect which is required of today's art education is very huge.

Especially,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is a specific area that improves such visual recognition ability, and people can eventually find out the beauty in daily life and get aesthetic feeling and composure through such education. This kind of activity, which pursues beauty, was limited to appreciation education focusing on art works in the past, but now it includes visual culture of the wider range in an extended meaning.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art education is absolutely needed, and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related to direct aesthetic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meaning and need.

Therefore, this stu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art appreciation to improve ability in terms of visual literacy and visual communication, which develops the visual recognition ability that critically receive, adequately use, actively produce and reinterpret visual information overflowing in the changing society. An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development plan of work sheet as a teaching material for more efficient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In chapter 1, preface, I briefly mention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n chapter 2, I examined the concept of art appreciation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rt appreciation, and suggested the patterns and types of appreciation guide. In chapter 3, I emphasized the needs of work sheet as a supplementary material for appreciation from the educational aspect of constructionism, and suggested merits that work sheet has as a teaching material. In chapter 4, I divided work sheet into 2 types; one for work sheet used at museums which plays a role as self-guide; the other for work sheet at school which is one of the programs that provide constructionism educational environment. By doing so, I embodied the practical uses of work sheet. In chapter 5, I categorized work sheet according to format and content and presented the keynote of production and final sample.

From this, I suggested the need of development, pattern of production and use example of work sheet as a teaching aid, which is aimed at being used as an efficient teaching material to correspond to the current social and educational trend in which interest about visual culture education is

rapidly increasing. I expect further studies, which are more embodied by museums, current teachers and education researchers based on this study, to be followed in future.